

C8007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우리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펀드명칭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B135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변액보통, 개방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16.02.11
운용기간	2026.01.01 ~ 2026.03.31	존속기간	추가행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투자 목적은 유럽지역의 배당 주식형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이득과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유럽 주식시장 수익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자산 총액 (A)	786	588	-25.26
	부채 총액 (B)	14	0	-97.30
	순자산총액 (C=A-B)	772	587	-23.96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492	388	-21.11
	기준가격 (E=C/D × 1000)	1,568.73	1,512.09	-3.61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1분기 유럽 주식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와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도 후퇴하였습니다. 다만 방산주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방비 지출 확대 기대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에너지주 역시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아 지수 하락폭을 일부 완충한 분기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2분기 유럽 주식은 미국-이란 중전 협상 진전과 유가 안정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완화되며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산주는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 속에서 건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선호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펀드는 유럽 배당주 중심의 인컴 전략을 유지할 예정이며, 배당의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3.61	3.03	3.94	1.76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1.76	12.64	29.49	38.29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	-	-	64	-19	-	-	-	-	8	52
당기	-	-	-	-18	-7	-	-	-	-	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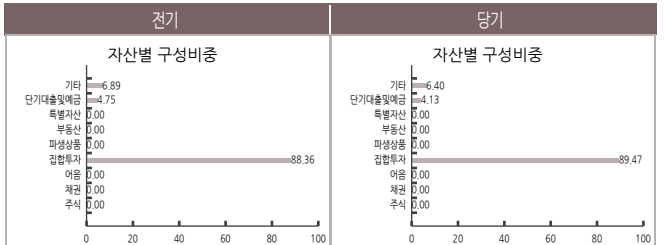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0 (0.00)	0 (0.00)	0 (0.00)	526 (89.47)	0 (0.00)	0 (0.00)	0 (0.00)	0 (0.00)	24 (4.13)	38 (6.40)	588 (100.00)
합계	0	0	0	526	0	0	0	0	24	38	588

※ (): 구성비중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용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분 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분 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6.03.31)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6.01.01 ~ 26.03.31)	환헤지로 인한 손익 (26.01.01 ~ 26.03.31)
100.0	100.0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현황

▶ 통화선물

(단위: 계약, 백만원)

종목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고
			0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TIGER 유로스탁스50(합성H)	89.47	6	
2	기타	추가금NH(선물)	6.40	7	
3	단기상품	엔대(국민은행)	4.1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TIGER 유로스탁스50(합성H)	수익증권	547	526	대한민국	KRW	89.47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국민은행	2016-02-11	24	2.07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운용중인 펀드 현황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73	2,449,811	2119000125
김태현	차장	73	2,449,811	2119000109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2	0	0.02
판매회사	1	0.11	1	0.1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	0	-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1	0.14	1	0.13
기타비용	1	0.07	1	0.09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	0.05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	-
	합계	0	0.02	0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ESG관련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8053	0.0929	0.8982
당기	0.9005	0.2039	1.1044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이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재간접 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해외재간접구조 현황

- 1) 해외운용사명: Allianz Global Investors
- 2) 해외소재지: 룩셈부르크
- 3) 해외운용전문인력: Jorg de Vries Hippen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 재간접펀드 운용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factsheet)를 제공 받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자산구성현황, 투자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